

## 數理를 통해 살펴본 十干과 十二支의 종합적 개념

<sup>1</sup>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대학원생, <sup>2</sup>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한국<sup>1</sup> · 尹暢烈<sup>2\*</sup>

### Synthetic Conception of Ten Heavenly Stems and Twelve Earthly Branches According to Mathematical Principle

Han Gook<sup>1</sup> · Yun Chang-Yeol<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at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Objectiveness and accuracy of numbers could allow for a new way of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Ten Heavenly Stems(THS) and Twelve Earthly Branches(TEB) when applied.

**Methods** : The order of the THS and TEB, the Five phases of direction and change, conversion of other, conversion of self of the Stems and Branches were examined through numbers.

**Results & Conclusions** : The numerical combination of the Stems and Branches depend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Three Points. Conversion of self of the Heavenly Stems are as follows: for 甲  $3+5=8$ , for 乙  $8+4=12$ , for 丙  $7+1=8$ , for 丁  $2+8=10$ , for 戊  $5+7=12$ , for 己  $10+10=20$ , for 庚  $9+9=18$ , for 辛  $4+6=10$ , for 壬  $1+3=4$ , for 癸  $6+2=8$ . Conversion of self of the Earthly Branches are as follows: for 子  $1+2=3$ , for 丑  $5+5=10$ , for 寅  $3+2=5$ , for 卯  $8+4=12$ , for 辰  $5+1=6$ , for 巳  $2+8=10$ , for 午  $7+7=14$ , for 未  $10+10=20$ , for 申  $9+7=16$ , for 酉  $4+9=13$ , for 戌  $5+6=11$ , for 亥  $6+3=9$ . Here the Stems and Branches could be understood intensively. Among the Stems and Branches, the Great Points are 壬, 癸, 戊, 亥, 子, Emperor Points are 甲, 戊, 丑, 午, and Empty Points are 己, 未.

**Key words** : Heavenly Stems, Earthly Branches, Mathematical Principle, Empty Point, Great Point, Emperor Point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82-042-280-2601, E-mail : yooney@dju.kr

Received(January 13, 2020), Revised(January 21, 2020), Accepted(January 22,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序論

우주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 무엇이 우주를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하는가. 이것을 동양의 철인들은 우주변화의 力源으로 무극, 태극, 황극의 三極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순수음양인 律呂가 우주생명인 氣를 律動시키고 呂靜시킨다고도 이야기하였다. 우주의 운동은 쏘아 놓은 화살처럼 미래를 향해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시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초가 60회 순환하여 1분을 이루고, 1분이 60회 순환하여 1시간을 이루고 1시간이 24회 순환하여 하루를 이루고 있다. 또 하루가 순환하여 1달을 이루고 1달이 순환하여 1년을 이루고 1년이 순환하여 소강절이 처음으로 밝힌 元會運世의 대주기 순환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순환의 과정은 陽운동의 분열과정과 陰운동의 통일과정을 반복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를 『주역』 「계사전」에서는 ‘一陰一陽之謂道’<sup>1)</sup>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우주는 한번 陰이 되고 한번 陽이 되는 陰陽의 순환 반복운동을 영원히 지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근본적인 힘이 道이고 이것이 또한 태극이라고 설교하였다. 분열과 통일의 음양 운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木火의 陽운동과 金水의 陰운동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차질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土가 매개하고 조화하여 순환 질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행의 운동이다. 이것을 주역계는 「태극도설」에서 “陽變陰合하여 而生水火木金土하고 五氣順布에 四時行焉이라(木火의 陽이 변화시키고 金水의 陰이 통일작용을 하여 水火木金土의 오행이 생겨나고 木氣, 火氣, 土氣, 金氣, 水氣의 오행기운이 순조롭게 펼쳐짐에 춘하추동의 4계절이 운행하게 된다.)”<sup>2)</sup>고 하였다. 그리고 주역계는 “無極而太極”<sup>3)</sup>이라고 하여 현실세계가 이렇게 陰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은 우주의 본체인 太極의 원리가 主宰하기 때문이고 이 태극은 또한 우주의 본원인 無極

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sup>4)</sup> 따라서 우주의 운동을 고찰해보면, 본체에 뿌리를 두고 작용이 변화 발전하는 원리는 ‘무극 → 태극 → 음양 → 오행’이며, 작용이 본체로 귀납, 환원하는 원리는 ‘오행 → 음양 → 태극 → 무극’이다.

현실세계의 음양오행 운동을 우리는 사계절의 순환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단순한 木火土金水의 운동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매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우주 변화의 근본주체는 坎離의 水火운동이고 이를 보조하는 중간과정인 木金의 작용이다. 그리하여 『소문·천원기대론』에서 “水火者는 陰陽之徵兆也오 金木者는 生成之終始也라”<sup>5)</sup>고 하였다. 위와 같이 단순히 木火土金水의 五氣가 순차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하늘의 운행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10개의 명칭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10天干이다. 그리고 水에서 木으로 전환할 때도 土가 매개하고 木에서 火로 바뀔 때도 土가 또한 매개하며 木火의 전반기 전과정을 金水의 후반기 과정으로 매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10土가 매개를 하여 火生土土生金한다. 또 金에서 水의 과정으로 바뀔때도 土가 매개하여 木火金水의 사이사이마다 土가 매개하여 변화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도록 조절하는데, 이것은 땅에서의 변화로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의 12개의 명칭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12地支이다. 우리는 干支를 통해 비로소 음양오행의 단순한 변화원리를 넘어서, 우주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3대과정인 토화작용, 소양상화작용, 금화교역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변화 속에 존재하는 우주본체인 무극, 태극, 황극의 모습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나

1) 周易(貞). 대전. 학민문화사. 1990. p.259.  
2)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1).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 p.116.  
3)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1).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 p.89.

4) 유가에서는 朱子의 해석에 따라 ‘無極而太極’을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해석하나 論者는 강서성 九江市의 염계의 후손집에 전해오는 필사본에 ‘無極而生太極’이라고 한 것과 김일부선생이 정역에서 ‘天地之理는 三元이라’하여 무극, 태극, 황극을 구분하였고 한동석이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天干, 地支에서 무극, 태극, 황극의 자리를 각기 구분한 것에 근거하여 무극과 태극의 자리가 다르다고 해석하였다.  
5) 홍원식 校合編纂. 정교황제내경. 서울. 동야의학연구원. 1981. p.127.

이러한 변화의 모습과 진리의 핵심을 더욱 심도있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10干과 12支에 숫자를 배합하여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干支의 德性和 숫자의 정직성이 결합될 때 우주의 변화는 자신의 본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참모습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양과 서양에서 數의 가치를 얼마나 증시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도낙서의 기본수인 1, 2, 3, 4, 5, 6, 7, 8, 9, 10의 이치와 철학적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天干의 방위오행과 변화오행에 따른 숫자의 배합 그리고 이들의 對化作用과 自化作用의 종합적인 모습을, 地支의 방위오행과 변화오행에 따른 숫자의 배합 그리고 이들의 對化作用과 自化作用의 종합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干支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白裕相, 金度勳의 “素問入式運氣論奧와 五行大義의 五行 및 干支에 대한 解釋 比較 研究”<sup>6)</sup>, 윤창열의 “干支의 意義 및 說文解字의 十干에 관한 연구”<sup>7)</sup>, 유영준, 윤창열의 “十干의 음양, 오행, 相沖, 장부배합에 관한 연구”<sup>8)</sup> 등이 있으나 干支에 숫자를 배합하여 數理를 통해 무극, 태극, 황극의 자리를 파악하고 토화작용, 소양상화작용, 금화고역 등을 설명한 논문은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었다. 이에 論者는 干支에 숫자를 배합하고 數理를 통해 10干과 12支의 종합적인 개념을 파악하여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 2. 동양과 서양에서 바라본 수의 가치와 중요성

### 1) 동양에서 본 수의 가치와 중요성

한동석은 그의 저서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數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물의 질량을 계산하며 측정하는 수단과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철학적으로 고찰해보면 數는 사물의 機微이며 또한 有와 無의 변화하는 象이며 單과 多의 운동 현상인 것이다.”<sup>9)</sup>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사물의 기미라는 것은 생명의 율동하는 모습인 象속에 內在하여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 기미가 數의 本源이고 數의 창조점이라는 의미이고 有와 無의 陰陽의 分合과 單과 多의 五行의 변화가 모두 數의 본원인 기미에서 일어나는 조화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sup>10)</sup>

張閔中の ‘易之義가 본래 數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程子是 易속에서의 理와 象과 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易義가 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치가 있는 뒤에 象이 있고 象이 있는 뒤에 數가 있으니 易은 卦象을 통해 數를 아니 易의 의미를 터득하기만 하면 易象과 易數는 그 속에 있는 것이다.(謂義起於數則非也니 有理而後에 有象하고 有象而後에 有數니 易은 因象以知數니 得其義則 象數는 在其中矣라)<sup>11)</sup>

이치는 형체가 없다. 따라서 卦象을 통해 이치를 알 수 있으니 이치는 卦사 爻사에서 나타난다. 즉 卦사, 爻사로 말미암아 卦象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터득하기만 하면 象과 數는 그 속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理는 無形也라. 故로 因象以明理하나니 理見乎辭矣라. 則可由辭以觀象故로 曰得其義則 象數는 在其中矣니라)<sup>12)</sup>

위의 내용은 象과 數가 理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朱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인이 易을 처음 지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구부러 살펴 천지사이에 가득찬 것이 一陰一陽

6) 백유상, 김도훈. 소문입식운기론오와 오행대의의 오행 및 간지에 대한 해석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3).

7) 윤창열. 간의의 의의 및 설문해자의 十干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7. 30(4).

8) 유영준, 윤창열. 십간의 음양, 오행, 相沖, 장부배합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9. 32(2).

9)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91.

10)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91~192.

11) 周易(元). 대전. 학민문화사. 1990. p.148.

12) 周易(元). 대전. 학민문화사. 1990. p.149.

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치가 있으면 이러한 象이 있고 이러한 象이 있으면 그 數가 곧 저절로 이 속에 있게 된다.(聖인이 作易之初에 蓋是仰觀府察하여 見得盈乎天地之間이 無非一陰一陽之理라 有是理 則有是象이오 有是象 則其數가 便自在這裏라<sup>13)</sup>

이치가 있으면 氣가 있고 氣가 있으면 數가 있게 된다.(有是理면 便有是氣오 有是氣면 便有是數라)<sup>14)</sup>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理(氣) → 象 → 數의 관계가 성립함을 살펴 볼 수 있다. 반대로 우리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숫자를 통해 象을 파악하고 象을 통해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는데 주역 점을 칠 때 揲蓍를 통해 卦象을 정하고 卦를 통해 吉凶의 이치를 판단한다. 揲蓍의 과정은 50개의 蓍草를 가지고 策數를 통해 卦象을 확정하게 됨으로 數 → 象 → 理의 관계도 성립하게 된다.

이처럼 數는 象에서 나오고 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象數라고도 불리었고, 이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理數라고도 불리었으며, 만물의 법칙을 담고 있으므로 法數라고도 불리었다. 程伊川은 易傳序에서 “지극히 은미한 것은 이치이고 지극히 드러난 것은 象이다(至微者는 理也오 至著者는 象也라)”<sup>15)</sup>라고 하였고 象은 이치를 밝히는 주체(明理者象)가 됨으로 이를 중시하였으나 象의 可否판단에는 주관이 개입되어 혼란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象의 판단에 객관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數를 또한 중시하였다. 수의 정직성과 명확성 및 공정성은 객관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象數라는 개념 속에는 象은 數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象以定數) 數는 象의 의미를 밝혀주며 또 그의 내용을 증명해주기도 한다.(數以證象)<sup>16)</sup>는 상호보완적인 의미가 있다.

남송시대의 蔡沈(1167~1230)은 『洪範皇極內篇』을 지어서 數가 天地萬物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數根本論을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지를 비롯되게 하는 것도 수이고, 인간과 만물을 생하게 하는 것도 수이고, 만물의 득실이 있게 하는 것 역시 수이다. 수의 體는 形에서 드러나고, 수의 用은 理에 있어서 오묘하다(天地之所以肇者는 數也오 人物之所以生者는 數也오 萬物之所以失得者도 亦數也니 數之體는 著于形하고 數之用은 妙乎理라)<sup>17)</sup>

사물에는 그 법칙이 있는데, 數가 세상에 있는 사물의 법칙을 다한다. 또한 일에는 그 理가 있는데, 수가 세상에 있는 일의 理를 다한다. 수를 얻으면 그 속에 사물의 법칙과 일의 理가 존재하지 않음이 없다.(物有其則하니 數者는 盡天下之物則也오 事有其理하니 數者는 盡天下之事理也라 得乎數면 則物之則과 事之理가 無不在焉이라)<sup>18)</sup>

어둡고 아득한 가운데 먼저 조짐이 있는 것은 數의 근원이다. 儀가 있고 象이 있어 하나가 갈라져 둘이 되는 것은 數의 나뉘임이다. 일월성신이 위에서 드리우고, 산악과 내와 연못이 아래에서 자리잡은 것은 數의 드러남이다. 사계절이 번갈아 운행하여 다함이 없고, 五氣가 순서대로 유통하며, 바람과 우레는 헤아릴 수 없고, 비와 이슬이 운택하게 하고 만물이 形色을 갖추는 것은 數의 화합이다. 성인이 세상을 이어 천지를 다스려 人極을 세우고 사물을 저울질하여 고르게 베풀며 父子는 친함으로 하고, 군신은 의리로, 부부는 분별로, 長幼는 순서로, 친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數의 가르침이다. 하늘을 나누어 아홉 분야를 만들고, 땅을 분별하여 구주를 만들며 …[중략]… 수의 법도이다. (溟漠之間에 兆

13) 周易(元). 대전. 학민문화사. 1990. p.152.

14) 黎靖德 類編. 朱子語類(三). 濟南. 山東友誼書社. 1993. p.2638.

15) 周易(元). 대전. 학민문화사. 1990. p.192.

16)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72~173.

17)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3).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 p.1598.

18)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3).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 p.1637.

朕之先은 數之原也오 有儀有象하야 判一而兩은 數之分也오 日月星辰이 垂於上하고 山巖川澤이 奠於下는 數之著也오 四時迭運而不窮하고 五氣以序而流通하며 風雷不測하고 雨露之澤과 萬物形色은 數之化也오 聖人繼世하야 經天緯地하야 立茲人極하고 稱物平施하며 父子以親하고 君臣以義하고 夫婦以別하고 長幼以序하고 朋友以信은 數之教也오 分天爲九野하고 別地爲九州하며 …[중략]… 數之度也라)<sup>19)</sup>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천지의 창조, 인물의 생성, 만물의 변화가 모두 수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펼쳐지고 있으며 또한 만물의 법칙, 사물의 이치 속에도 數理가 內在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막무침한 혼돈의 상태(무극 또는 태극)는 수의 근원이고 兩儀, 四象은 수가 나누어진 것이며 일월성신, 산악천택은 수가 드러난 것이고 사시의 운행, 오기의 順布, 風雷雨露의 현상, 만물의 형태와 색깔 등도 모두 수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인이 천지를 다스려 人極을 세우고 고르게 베풀며 五倫으로 다스리는 것도 수의 교화이고 하늘을 九野로 나누고 땅을 九州로 나눈 것 등도 모두 수의 法度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理가 있는 곳에는 數가 있어 理와 數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 하였다.

## 2) 서양에서 본 수의 가치와 중요성

서양의 학자들도 동양사람 못지않게 數를 중요시 하였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만물의 본질은 수라고 하였다. 또 수의 이치와 정신을 깨달아야 인간이 만물과 조화되어 의식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하였고 “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놓여진 다리이다.”<sup>20)</sup>라고 하였다. 그는 자연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영구불변하게 존재하는 세계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

해서도 수학을 이용했고 수를 통한 영혼의 정화를 주장하였다.<sup>21)</sup> 그는 특별히 1(Monad), 2(Dyad), 3(Triad), 4(Tetrad), 5(Pentad), 6(Hexad), 7(Heptad), 8(Octad), 9(Ennead), 10(Decad)까지의 수에 대하여 특별한 철학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피타고라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수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고 수학이 없었다면 인간은 현대문명을 이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수는 우리의 생활과 학문 그리고 문명의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수학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보다도 더 강력한 知的도구”<sup>22)</sup>라 하였고 갈릴레이(1564~1642)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은 수학의 언어로 저술되었고 그 알파벳은 삼각형, 원 등 여타의 기하학적 數式으로서 그것들 없이는 우주의 단 한 단어도 인간에게 이해될 수 없다”<sup>23)</sup>라고 하여 자연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저술된 책이라 하였다. 그리고 뉴욕대학교 명예교수 모라스 클라인은 『수학, 문명을 지배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수학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난 혼란스런 사건들에 질서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스스로 활동하고자 하는 건강한 두뇌의 자연적 성향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정확한 사고가 추출해낸 최고 순도의 증류수다. 수학 덕분에 존재하게 된 위대한 업적들로 다른 문명과 구분되는 바로 이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진술의 증인일 것이다.”<sup>24)</sup>

## 3) 1에서 10까지 자연수의 특징

數자체가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전통은 그 뿌

19)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3).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 p.1646~1653.

20) 존 스트로마이어, 피타 웨스트브룩 지음. 류영훈 옮김. 피타고라스를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통크. 2005. p.80.

21) 이광연 지음.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p.128.

22) 김용규. 생각의 시대. 파주. 살림출판사. 2015. p.328.

23) 김용규. 생각의 시대. 파주. 살림출판사. 2015. p.359.

24) 김용규. 생각의 시대. 파주. 살림출판사. 2015. p.376.

리가 유구하다. 최치원이 漢譯하여 전하는 天符經은 81자 가운데 31자가 數로 되어 천지인의 탄생과 변화를 수로 설명하고 있고 천지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河圖와 洛書는 모두 白圈과 黑圈의 數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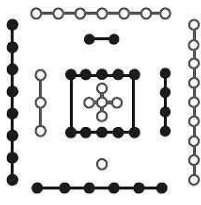


그림 1. 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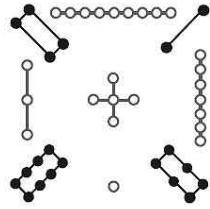


그림 2. 낙서

劉焯은 하도를 보고서 八卦를 그렸고 낙서를 보고서 洪範九疇을 연역하였다.<sup>25)</sup>고 하였으니 數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자는 『주역』 「계사전」에서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하늘 하나, 땅 둘, 하늘 셋, 땅 넷, 하늘 다섯, 땅 여섯, 하늘 일곱, 땅 여덟, 하늘 아홉, 땅 열이니, 하늘수가 다섯이요 땅의 수가 다섯이니, 다섯 位가 서로 얻으며 각각 합함이 있으니, 천수는 25요 지수는 30이라. 무릇 천지의 수가 55니, 이것으로써 변화하며 귀신을 행하느니라. (天一 地二 天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이니 天數 五오 地數 五니 五位相得하며 而各有合하니 天數 二十有五오 地數 三十이라. 凡天地之數가 五十有五니 此 所以成變化하며 而行鬼神也라.)<sup>26)</sup>

여기에서 10과 12支를 숫자로 살펴볼 때 이해를 돕기 위하여 1과 10까지 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은 전체를 나타내며 모든 수를 창조하는 수이며

하늘을 상징하고 만물이 태어나는 근원으로서 태극을 상징하여 1태극이라고 한다. 1은 기하학도형에서 점(·) 또는 원(○)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며 첫 출발을 나타낸다. 1이 전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해도 그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모든 만물 속에 1이 內在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 1은 분열되었던 생명이 통일된 것(unity) 하나됨(oneness)을 나타내고 2라는 수를 잉태하고 있다. 이것은 1태극이 음양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서양의 학자들도 “하나는 모나스monas 혹은 단일이며 남성이면서 여성이며 홀수이면서 짝수이다”<sup>27)</sup>라고 하였다. 사상에서는 太陽의 位數이고 오행에서는 水의 生數이다.

2는 1이 음양운동을 하는 음양수로 兩極性(polarity)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하학의 도형에서 양끝을 가진 線分 또는 方(□)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한다. 방(□)이 4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음은 2개를 하나로 씌우므로(예를 들어 젓가락은 2개가 한 짝이 되고 신발도 2개가 한 켤레가 되고 음효(☯)는 2개가 1개의 효를 이룬다.  $4 \div 2 = 2$ 가 되어 방(□)의 수는 2가 된다. 동양에서 1과 2는 모든 수를 낳는 근원이 됨으로 天地父母數라고 하는데 마이클 슈나이더도 “옛 사람들은 모나드와 디아드를 수가 아니라 수들의 부모로 생각했다. 양자의 결합 즉 1과 2, 점과 선, 통일성과 차이라는 원리들의 융합은 그 다음에 잇따르는 모든 원형적 원리를 낳으며 그것들은 수로 나타나고 숫자로 상징화되고 자연 속의 모양들로 관찰된다. 여기서 디아드는 一者와 多者를 잇는 통로이다.”<sup>28)</sup>라고 하여 동서양의 사고가 동일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2는 四象에서 少陰의 位數이고 오행에서는 火의 生數가 된다.

3의 유래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이 伸長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25) 周易(元). 대전. 학민문화사. 1990. p.32.

26) 김석진 강해. 대산주역강해(하경). 서울. 대유학당. 1994. pp.323-324.

27) 존 스트로마이어, 피터 웨스트브룩 지음. 류영훈 옮김. 피타고라스를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통크. 2005. p.86.

28) 마이클 슈나이더저. 이충호 옮김.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서울. 경문사. 2007. p.30.

말해 1이라는 본체가 작용할 때 3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원(○)으로 설명해보면 지름과 원주의 비율이 1:3(3.14)이나 철학적으로는 3으로 계산한다)이라는 것에서 나타나며 양효(—)와 음효(⚊)의 비율이 3:2라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3인 트리아드에 대해 “트리아드는 모든 수를 증가하는 특별한 아름다움과 공정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트리아드는 모나드의 잠재성이 최초로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이다”<sup>29)</sup>라고 하였다.

둘째 天一과 地二가 합하여 人三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자의 三을 一加於二(1에 2를 더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데서도 드러난다. 一水와 二火의 음양이 결합하여 三水에서 만물이 화생됨을 상징한다. 즉 3은 천지인 三才의 구성을 나타냄으로 만물 구성의 기본수(원자가 양성자, 전자, 중성자로 구성된 것 등이다.)가 되고 기하학의 도형에서 각(△)을 상징하고 인간을 상징하며 시간적으로 生長成의 변화를 나타낸다. 피타고라스는 3은 균형과 구조의 원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사상에서는 少陽의 位數가 되고 오행에서는 木의 生數가 된다. 2와 3은 음양의 기본수가 되는데 2는 음의 기본수가 되고 3은 양의 기본수가 된다.

4는 만물 구조의 기본을 나타내는 2가 2차 분화(22)하여 생긴 수이므로 공간적으로는 四方, 시간적으로 춘하추동의 4계절을 나타내며 기본적인 구조와 변화의 틀이 완성됨을 나타낸다. 주역 64괘의 기본은 乾坤坎離인데 이것은 天地日月로 자연질서의 기본틀을 구성하며 오행에서 土를 震 四象이 구조와 변화의 기본틀을 형성하며, 사람을 4종류로 구분하는 四象醫學도 여기에 근거를 두며 인간의 몸체에는 四肢가 붙어있고, 안면부는 耳目口鼻로 이루어지고 天道와 인간의 본성이 亨亨利貞과 仁義禮智로 이루어지며 인체가 탄소(C), 수소(H), 산소(O), 질소(N)로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타고라스는 4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2+2), 곱해서(2×2) 나타나

29) 마이클 슈나이더 저. 이충호 옮김.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서울. 경문사. 2007. p.43.

는 최초의 수이고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수(4=2+2, 두 개의 2는 1+1, 1+1로 나누어지는 것)임으로 근원인 모나드(1)로 돌아갈 수 있는 수라고 하였는데<sup>30)</sup> 이는 오행에서 金生水함을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사각형을 뜻하는 영어의 스퀘어(square)는 공정, 평등, 정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는 가을의 정신인 義와 일맥상통한다.<sup>31)</sup>

4는 사상에서는 太陰의 位數가 되고 오행에서는 金의 생수가 된다. 생수라는 것은 그 물질을 탄생시키는 잠재적인 힘 또는 가능성만을 가진 것을 말한다. 3과 4는 음양의 최초작용수가 되며 縱三橫四(천지인과 춘하추동)로 주로 작용한다.

5는 양방위인 목의 생수 3, 화의 생수 2를 합한 수이며 또한 음방위인 금의 생수 4와 수의 생수 1를 합한 수로서 음과 양의 성질을 모두가 지고 있는 中性數이며 1, 2, 3, 4의 운행 속에서 저절로 自化된 數이다. 또 5는 하도와 낙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수로, 하도에서는 생수를 성수로 전환시키는 (5+1=6, 5+2=7, 5+3=8, 5+4=9, 5+5=10) 조화와 중매작용을 하는 수이며, 낙서에서는 八方位의 수를 주재하여 운행하고 변화시키는 皇極數(洪範의 5황극)가 된다.

피타고라스는 5가 음양의 기본수인 2와 3의 승이므로 남녀의 결혼, 조화, 화합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우주는 모나드(1)에서 시작되고 디아드(2)를 통하여 움직임의 얻고 펜타드(5)로부터 삶을 얻어 데카드(10)로 마무리된다고 하였다.<sup>32)</sup> 5는 오행의 수이며 土의 생수로 작용의 중심수(1에서 9사이의 中數)가 된다.

6은 천지의 부모수인 1과 2 그리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식인 3을 모두 곱하거나(1×2×3), 합하여(1+2+3)나온 수로서 완전한 구조를(예를 들어 벌집의 모양과 같은 것이다.) 이루고 있는 수이

30) 이광연 지음.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p.133.

31) 안경진. 개벽실제상황. 서울. 대원출판. 2006. p.113.

32) 이광연 지음.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p.133.

며 또한 天地人이合一된 것을 상징하는 수이다. 이를 천부경에서는 大三合六이라고 하였다. 또 6은 주역에서 兼三才而兩之하여 나온다고 하여 대성괘가 6爻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며 하늘의 五運이 지구에서 六氣로 통일되는 과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6은 사상에서는 太陰의 작용수가 되고 오행에서는 水의 성수가 되어 물의 결정이 6각형 구조를 이루고 雪片이 6角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를 설명한다. 5와 6은 음양의 중심작용수가 되어 천지에서는 5운6기 작용을 하고 인간에서는 5장6부 작용을 하게 된다.

7은 생명의 근원인 水의 생수 1과 성수 6의 합수이며 일월과 五星의 합수이며 또한 양의 최초 작용수 3과 음의 최초 작용수 4를 합한 수이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보르메오 고리에 의해 형성되는 일곱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천지인을 합한 중심이 7이 되어 천지인을 主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것은 빛의 3원색을 합하였을 때 중심이 백색이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sup>33)</sup> 동양에서는 북두칠성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주재하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여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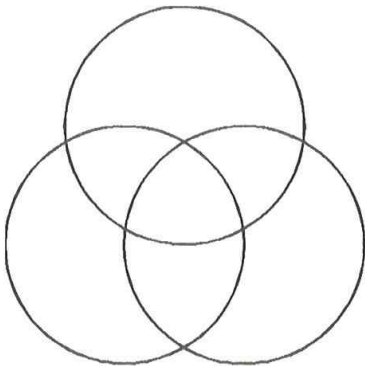


그림 3. 보르메오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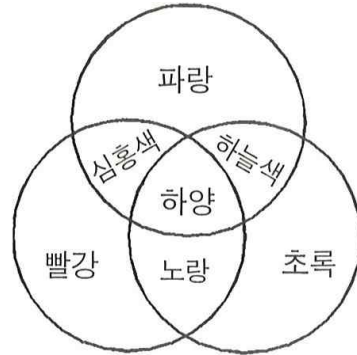


그림 4. 빛의 삼원색을 합한 모습

7은 육면체의 중심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는 2차원인 4각형의 중심 5가 황금이 되어 사방을 주재하듯이 3차원적인 6면체의 중심은 7이 되고 역시 황금이 되어 입체적인 공간을 주재한다는 의미가 있다.

피타고라스는 7은 10까지의 어떤 다른 수를 이용하여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수이고 어떤 다른 수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녀수'라고 불렀다.<sup>34)</sup> 하늘의 七星기운을 받아 인간에게는 七竅가 있고 달력에서 1주일이 7일로 되어 있으며 천부경에서는 大三合六하야 生七八九한다고 하였는데  $6+1(\text{하늘})=7$ 이 되어 하늘의 완성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7은 사상에서는 소양의 작용수가 되고 오행에서는 火의 成數가 된다.

8은  $23=8$ 이 되어 陰의 완성수가 된다. 음은 사람에게서 육신이 되고 육신의 완성은 仙人이 됨으로 8은 신선의 수가 된다. 중국의 8仙은 이와 관련이 있다. 또 8은 낙서에서 中心을 제외하고 주위에 8수가 배치되어 있듯이 대우주가 8방위로 펼쳐져 있고 자연의 변화가 8風운동을 하며 복희팔괘도, 문왕팔괘도, 정역팔괘도가 모두 8로써 작용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구조와 작용이 모두 8에서 완성됨을 상징하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8은 최초의 세 계급수 ( $2 \times 2 \times 2$ )로 안정되고 확고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

33) 마이클 슈나이더서. 이충호 옮김.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서울. 경문사. 2007. p.224.

34) 이광연 지음.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p.140-141.

진 수라 하였고 10까지의 수 중에서 다른 어떤 수보다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많은데(1, 2, 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는 8의 뿌리가 1, 2, 4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였다.<sup>35)</sup> 천부경의 원리에서  $6+2(\text{땅})=8$ 이 되어 땅의 완성수라고 말할 수 있고 사상에서는 소음의 작용수가 되며 오행에서는 木의 成數가 된다.

9는 낙서수로서 최대의 분열을 상징하는 九宮數가 된다. 그래서 하늘을 九天, 땅을 九州로 나누었다. 10은 하도수로서 통일과 성숙을 상징함으로 10까지의 수에서 陽의 발전과 분열의 極數는 9가 된다. 1은 태양의 位數이고 9는 태양의 작용수가 되는데 蔡沈은 『洪範皇極內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은 9의 근원이고 9는 81의 뿌리이다.(一者是 九之祖也 九者是 八十一之宗也라)<sup>36)</sup>

一은 수의 시작이고 9는 수의 끝이니 1은 변하지 않지만 9는 모두 변한다.(一者是 數之始也 九者是 數之終也니 一者是 不變而九者是 盡變也라)<sup>37)</sup>

위의 내용은 태양의 位數이며 태극수인 1이 분열하여 9까지 이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동석은 “九字의 뜻에는 丿이라는 양이 발전하려고 하지만 乙의 屈하는 성질 때문에 발전이 정지되고 있는 象이 있어 九자의 뜻을 合也, 聚也라고 한다.”<sup>38)</sup>라고 하였다. 즉 九에는 糾合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피타고라스학과 사람들은 9를 ‘중착역’ 또는 ‘완성에 이르는 곳’이라 불렀다. 9는 모나드의 한 형태이자 수 자체의 영역을 벗어나는 데카드에 이르기 전에 존재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세 개의 3으로 이루어진 9는 최상의 완전, 균형, 질서를 표현하며, 세 배로 신성

하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sup>39)</sup>

천부경의 원리에서  $6+3(\text{인간})=9$ 가 되어 인간의 완성수가 되어 사람에게 九癡가 있다. 9는 사상에서는 태양의 작용수가 되고 오행에서는 金의 成數가 된다.

10은 분열의 極數인 9를 지나서 이르는 수로 성숙과 통일을 준비하는 하도의 수가 된다. 10은 漢字로 十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음(-)과 양(+), 陰(一)이 等質等量으로 결합하여 작용을 정지하고 있으면서 1로 돌아가려고 하는(十의 중심교차점을 상징) 모습을 나타내고, 아라비아 숫자의 10은 1이 최대로 분열하여 정지(○)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또한 9를 지나 10자리에서는, 출발했던 본래자리인 1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아직 수축작용을 시작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를 상징하기도 한다. 10은  $1+2+3+4=10$ 의 합으로 이루어져 水火木金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는 中性數가 됨으로 無極을 상징한다. 따라서 10은 다른 수와는 달리 가장 위대한 완전수가 되어 동서남북과 춘하추동을 주재하며 시간과 공간, 인간과 만물을 조화시키고 성숙케하는 수가 된다.<sup>40)</sup>

피타고라스는 10(decad)을 ‘그릇’이라는 뜻의 ‘데카다(dechada)’라고 불렀는데 이는 만물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또 10을 ‘우주를 하나로 묶는, 혹은 자연의 법칙을 정리하는 신적인 작용들의 종합’이라고 했다. 또 피타고라스 학파는 10을 우주, 하늘 심지어 유일자의 섭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섭리들이 만물을 조정하기 때문이다.<sup>41)</sup>

10은 태양의 位數 1과 태양의 작용수 9, 소음의 位數 2와 소음의 작용수 8, 소양의 位數 3과 소양의 작용수 7, 태음의 位數 4와 태음의 작용수 6의 合數가 되고 土의 生數 5가 自化하여 생성된 土의 成數가 된다.

35) 이광연 지음.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p.142.

36)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3).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 p.1632.

37)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3).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 p.1632.

38)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79.

39) 이광연 지음.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p.144.

40) 안경진. 개벽실체상황. 서울. 대원출판. 2006. p.118.

41) 존 스트로마이어, 피터 웨스트브룩 지음. 류영훈 옮김. 피타고라스를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통크. 2005. p.94.

### 3. 天干과 數의 배합

#### 1) 天干的 순서에 따른 숫자의 배합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를 순서에 따라 1, 2, 3, 4, 5, 6, 7, 8, 9, 10을 배합하는 것으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천간순서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順序	1	2	3	4	5	6	7	8	9	10

甲은 1로 천간 전체의 시작이 되어 으뜸이 되고 또한 陽의 시작이 되며 乙은 2로 陰의 시작이 된다. 戊己는 중앙의 5, 6번째 위치하고 壬은 9로 陽干을 매듭짓는 천간이 되고 癸는 천간 전체를 매듭지으며 또한 陰干을 끝내는 자리가 된다. 1, 3, 5, 7, 9번째 위치하는 甲, 丙, 戊, 庚, 壬은 양수번째 위치하여 陽干이 되고 2, 4, 6, 8, 10번째 위치하는 乙, 丁, 己, 辛, 癸는 음수번째 위치하여 陰干이 된다.

#### 2) 天干的 방위오행에 따른 숫자의 배합

방위오행은 형제오행이라고도 부른다.

甲乙은 木이 되고 丙丁은 火가 되고 戊己는 土가 되고 庚辛은 金이 되고 壬癸는 水가 된다. 오행의 수는 1, 6水, 2, 7火, 3, 8木, 4, 9金, 5, 10土가 되며 陽干에는 陽數를 배합하고 陰干에는 陰數를 배합한다. 甲은 양목이므로 3이 배합되고 乙은 음목이므로 8이 배합된다. 丙은 양화이므로 7이 배합되고 丁은 음화이므로 2가 배합된다. 戊는 양토이므로 5가 배합되고 己는 음토이므로 10이 배합된다. 庚은 양금이므로 9가 배합되고 辛은 음금이므로 4가 배합된다. 壬은 양수이므로 1이 배합되고 癸는 음수이므로 6이 배합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천간의 방위오행에 따른 숫자 배합.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五行	양목	음목	양화	음화	양토	음토	양금	음금	양수	음수
배합수	3	8	7	2	5	10	9	4	1	6

#### 3) 천간의 변화오행에 따른 숫자의 배합

변화오행은 化氣五行, 부부오행이라고도 부른다.

甲己는 土가 되고 乙庚은 金이 되고 丙辛은 水가 되고 丁壬은 木이 되고 戊癸는 火가 된다. 각각의 오행은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이 배합되어 부부의 관계를 이룬다. 오행에 숫자를 배합할 때 역시 陽干에는 양수를 붙이고 陰干에는 음수를 붙인다. 甲土는 양토이므로 5를 배합하고 己土는 음토이므로 10을 배합한다. 乙金은 음금이므로 4를 배합하고 庚金은 양금이므로 9를 배합한다. 丙水는 양수이므로 1을 배합하고 辛水는 음수이므로 6을 배합한다. 丁木은 음목이므로 8을 배합하고 壬木은 양목이므로 3을 배합한다. 戊火는 양화이므로 7을 배합하고 癸火는 음화이므로 2를 배합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천간의 변화오행에 따른 숫자배합

천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변화오행	양토	음금	양수	음목	양화	음토	양금	음수	양목	음화
배합수	5	4	1	8	7	10	9	6	3	2

순환하는 天干에 그러한 숫자가 붙어야 하는 이유를 『우주변화의 원리』 책을 중심으로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甲5土는 양토로 土克水를 하여 坎水를 확장시키고 一陽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堅質을 軟化시켜 一陽의 脫出을 도아 甲3木으로 용출시켜 戊까지 만물을 성장시키게 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전반기를 여는 주인공이므로 5土가 되어야 한다.

乙4金은 음금으로 金克木에 의해 木氣를 뺀어 올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木形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는데 金火交易이 여기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丙1水는 양수로 動하면서도 수렴을 한다. 丙火는 양화로 散布作用을 하는 곳이다. 양의 지나친 散失은 질서의 붕괴를 가져옴으로 丙水는 신축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뺀어 나가게 하는 작용이 있고 또한 陽을 보호하면서 陽을 분산시켜 火의 中道の작용인 升明作用을 하게 하는 적격자가 된다.

丁8木은 음목이 되어 양의 발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丁2火는 丙火보다 진일보하여 火의 분열이 세분화되는 자리이다. 이때는 陽을 분산하면서도 양을 보호해야 하며 後天의 己土를 또한 준비해야 하므로 丁火를 一步후퇴시켜 丁이 陰木으로 바뀌게 되면(이 작용은 壬의 대화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된다. 夏至에 一陰生하는 자리이다.

戊7火는 현실적으로 분열이 극에 이른 자리임으로 7火의 모습을 나타낸다. 戊는 본래 土이므로 火土同德의 모습이 있고 癸水의 대화를 받아 水土同德의 모습이 있으므로 비록 일보 후퇴하여(戊土가 戊火가 된 것이 일보 후퇴이고 癸水의 대화작용으로 이루어진다.) 7火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火가 중도적 작용을 하여 陽이 산실될 염려는 적다.

己10土는 10개의 천간의 중심자리이다. 오행과 오운에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 자리는 己와 庚인데 이 중에서도 己는 甲에서부터 분열 발전해 온 전 과정을 통일하여 정신과 神明을 창조하는 근본자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중의 자리이며 후천운동을 시작하는 자리이다.

庚9金도 오행과 오운에서 숫자까지도 바뀌지 않는 순수한 자리이다. 이것은 분열된 陽氣와 정신을 수렴하는 중추가 되기 때문인데 신명창조의 목적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辛6水는 陰水로 辛金을 더욱 수축시켜서 壬1水로 전해주는 金生水하는 자리가 된다. 그리하여 자체적으로도 金生水하여 4금의 수렴작용을 더욱 강하게 하여 6음수로써 수축작용을 한다.

壬3木은 한주기의 과정을 끝내고 다음 주기를 丙에서 준비하는 자리이다. 壬1水는 생명이 완전하게 통일된 모습이고 壬3木은 水中之木으로 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冬至에 一陽生하는 자리이다.

癸2火는 壬3木이 발전한 자리이다. 癸는 본래 6水였다. 6水는 1水가 확장된 것이다. 癸水는 맞은 편에 있는 戊土와 相合하는데 土克水를 당하여 水가 동하게되어 癸火의 모습을 띄게 되니 水中之火의 모습이 된다.<sup>42)</sup>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甲5土는 甲3木을 만들면서 전반기의 문을 열기 위함이고, 乙4金은 乙8木을 만들기 위함이고, 丙1水는 丙7火를 만들기 위함이고, 丁8木은 丁2火를 만들기 위함이고, 戊7火는 전반기의 분열이 극도에 이른 것을 상징하고, 己10土와 庚9金은 분열된 양기와 정신을 수렴하는 중추가 됨으로 기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행과 오운이 동일하고, 辛6水는 辛4金의 작용을 도와주기 위함이고, 壬3木은 생명이 통일된 후 다음의 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癸2火는 물 속에서 작용하는 불의 모습이니 元陰 元陽이 함께 작용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 4) 天干의 對化作用을 통해서 본 數理

천지간의 모든 만물은 음과 양이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음양이 결합하여 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하늘과 땅, 해와 달, 남과 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부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미쳐 상대에게서 기운을 받는데 이를 대화작용이라 하며 수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天干의 부부관계는 맞은 편에 있는 것과 相合하는데 甲己合, 乙庚合, 丙辛合, 丁壬合, 戊癸合으로 陰陽合 관계를 이룬다.

甲3과 己10을 더하면 13이 된다. 이때 甲의 13을 10+3으로 나누어 보면 10은 氣化作用이 形化作用으로 바뀌는 마디가 됨으로 형체를 쓰고 용출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己의 10+3은 10土로써 만물을 수렴하고 통일작용을 하는데 그 목적은 봄에 씨 뿌렸던 木기운을 다시 추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金의 4와 9를 더하면 13이 되는데 이 13속에도 이러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乙8과 庚9를 더하면 17이 된다. 17은 10과 7로 나뉘어지는데 乙의 17은 甲木을 이어 乙에서 木形을 이루어 丙7火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42)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27~134.

있다. 庚의 17은 10土의 통일을 거쳐 수렴하고 보니 그 속에서 7火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니 이는 가을은 體는 金이나 用은 火로 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모습은 낙서의 정서방에 7이 자리잡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丙7과 辛4를 합하면 11이 된다. 11은 10+1로 10을 제외하면 1수가 되는데 丙辛이 합하면 水가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7은 火이고 4는 金임으로 金火交易이 이루어지면 그 궁극의 목적이 10무극이 1태극으로 통일되어 十一成道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11은 10+1로 나눌 수 있는데 10무극은 體가 되고 1태극은 用이 되는데 11자리는 우주가 본체로 환원되는 곳이다. 정역에서는 ‘十一歸體’<sup>43)</sup>라고 하였고 또 ‘無極而太極이니 十一이니라(무극이 태극으로 통일되니 11이 된다.)’<sup>44)</sup>라고 하였으며 생명이 통일된 자리를 ‘十一—一之空’<sup>45)</sup>이라고 하였다. 丙의 11은 火의 분열의 목적이 十一成道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 숨어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들어있다. 辛의 11은 金火交易의 결론은 水土가 합덕한 空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辛은 壬의 직전자리로 壬의 1태극수를 창조하는 뿌리가 된다.

丁2와 壬1을 더하면 3이 된다. 3은 木의 數로 丁壬이 합하면 木이 된다는 뜻도 들어있다. 이것은 丁火와 壬水 즉 水火가 만나면 생명이 처음으로 싹터나와 木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丁의 3은 2火속에 1수가 내재하여 火의 분열을 억제하는 모습이고 壬의 3은 水中之木으로 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戊5土와 癸6水를 더하면 11이 된다. 위의 丙辛을

은 金火交易의 목적이 十一成道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반해 이곳에서는 水土가 합덕한 그 자리가 바로 十一成道가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4개의 土가 있어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12지지에서 戊자리는 5土+6수가 되어 十一成道가 이루어 지는 자리인데 水土가 합덕한 자리가 된다. 戊의 11은 11성도의 실질적인 시작이 土자리인 戊에서부터 시작함을 나타내고 癸의 11은 11성도의 완성은 水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의 공통점은 2부相合하는 2개 천간의 陰과 陽이 만나 陽數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陰干과 陽干이 만난 당연한 결과이지만 夫婦相合하면 자식을 생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뜻이 숨어있으며 天의 작용은 生生不息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또 木의 합수(3, 13)가 2개이고 火의 합수(17)가 1개인 것은 하늘은 木火의 양기가 끊임없이 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11이 2개 있는 것은 우주운동의 목적은 十一成道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天干의 對化作用數와 合數.

대화천간	甲	己	乙	庚	丙	辛	丁	壬	戊	癸
배합수	3木	10土	8木	9金	7火	4金	2火	1水	5土	6水
五行	土		金		水		木		火	
合數	13		17		11		3		11	

5) 天干의 自化作用을 통해서 본 수리

自化의 개념은 2가지가 있다. 첫째 자체적으로 土를 가지고 있어 本中未운동을 自律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자신 속에 있는 이질적인 2개의 기운을 조화시켜 하나의 변화로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다. 天干은 土가 2개 밖에 없으므로 첫 번째의 自化作用을 수행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두 번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天干은 방위오행과 변화오행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수리를 통해 하나의 모습으로 해석해 보는

43) 김주성 편저. 正易集註補解. 부천. 태훈출판사. 1999. p.355.  
44) 김주성 편저. 正易集註補解. 부천. 태훈출판사. 1999. p.343.  
45) 김주성 편저. 正易集註補解. 부천. 태훈출판사. 1999. p.337.

것이다.

甲은 방위로는 3木이고 변화로는 5土이다. 이 둘을 합하면 8이 되는데 이는 木氣가 木形으로 발전해나가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乙은 방위로는 8木이고 변화로는 4金이다. 이 둘을 합하면 12가 되는데 이는 10+2로 木形을 쓰고 2火로 발전하려는 모습을 상징한다.

丙은 방위로는 7火이고 변화로는 1水이다. 이 둘을 합하면 8이 되는데 이는 8木에 뿌리를 두고 나왔음을 상징한다.

丁은 방위로는 2火이고 변화로는 8木이다. 이 둘을 합하면 10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후천운동을 하는 己10土의 준비를 하고 있다.

戊는 방위로는 5土이고 변화로는 7火이다. 이 둘을 합하면 12가 되는데 12는 10土+2火로 이는 己10土를 준비하면서 또한 낙서의 서남쪽에 있는 2火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己는 방위와 변화의 수가 모두 10이므로 10+10=20이 된다. 20은 본체가 되고 19가 작용수가 되는데, 자연수가 360도 1주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1부터 19까지 발전했다가 다시 19에서 1로 통일운동을 하여 20은 쓰지 않고 19가 최대 분열수가 됨으로 20의 用數를 19로 잡는 것이다.<sup>46)</sup> 19는 10+9로 10土에 뿌리를 두고 9金으로 통일작용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庚은 방위와 변화의 수가 모두 9이다. 9+9=18이 되는데 이는 10土에 뿌리를 두고 통일을 하고 보니까 봄의 木이었다는 것이다. 봄에 뿌린 씨앗대로 가을에 같은 열매가 열리는 이치이다.

辛은 방위로는 4金이고 변화로는 6水이다. 이 둘을 합하면 10이 되는데 10己土의 모습이다. 辛이라는 글자를 破字해도 立과 十으로 十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辛은 壬직전의 천간으로 壬이 1水로 생명을 통일하지만 그 대상이 10土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壬은 방위로는 1水이고 변화로는 3木이다. 이 둘

을 합하면 4가 되는데 자신의 뿌리가 辛4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癸는 방위로는 6水이고 변화로는 2火이다. 이 둘을 합하면 8이 되는데 元陰과 元陽이 합하면 생명의 元氣가 木氣로 발현함을 상징한다. 癸는 10干에 장부를 배합할 때 腎에 배속되는데 腎에는 腎中精氣가 있어 인체 생명활동의 근본이 된다. 腎中精氣는 腎陰과 腎陽으로 나뉘어 지는데 癸에 있는 6水와 2火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화작용의 합수는 대화작용과 달리 8(甲, 丙, 癸), 12(乙, 戊), 10(丁, 辛), 20(己), 18(庚), 4(壬)의 짝수가 나온다. 이는 陽+陽 또는 陰+陰의 결과인데 방위오행과 변화오행에서 모두 陽干에는 양수를 배합하고 陰干에는 음수를 배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天干의 自化作用數와 合數

천간	甲		乙		丙		丁		戊	
배합수	3木	5土	8木	4金	7火	1水	2火	8木	5土	7火
합수	8		12		8		10		12	

천간	己		庚		辛		壬		癸	
배합수	10土	10土	9金	9金	4金	6水	1水	3木	6水	2火
합수	20		18		10		4		8	

위의 내용을 통해 무극, 태극, 황극의 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一夫는 正易에서 “손을 들면 무극의 象이니 10이니라. 10은 바로 태극이 되니 1이니라. 1이 10이 없으면 체가 없고 10이 1이 없으면 用이 없으니 합하면 土라. 가운데 있는 것이 5니 황극이니라(舉便無極이니 十이니라 十便是太極이니 一이니라. 一이 無十이면 無體오 十이 無一이면 無用이니 합하면 土라 居中이 五니 皇極이니라)”<sup>47)</sup>라고 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무극의 수는 10이고 태극의 수는 1이고 황극의 수는 5라고 하였다. 김일부는 정역의 이치를 손가락을 가지고 파악하였는데 이를

46)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69.

47) 김주성 편저. 正易集註補解. 부천. 태훈출판사. 1999. p.50~52

手指度數라고 한다. 왼손의 엄지부터 屈하여 1, 2, 3, 4, 5까지 이르면 小指가 屈하게 되고 小指를 伸하면서 6, 7, 8, 9, 10을 붙이면 모지를 伸하면서 10이 된다. 10은 1에서 9까지의 모든 수를 거쳐서 이르게 되므로 10속에는 1에서 9까지의 모든 기운이 함축되어 있고 분열의 극에서 無化되므로 무극이 되니 이것이 손을 들면, 즉 손을 펴면 10이 되면서 무극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엄지를 다시 屈하면 1이 되는데 엄지는 펴면 10이 되어 무극이 되고 屈하면 1이 되어 태극이 되니 엄지는 무극이면서 태극이 된다. 태극은 우주의 정신이 하나로 응축된 것으로 현실세계를 창조하는 주체이다. 그리하여 무극은 體가 되고 태극은 用이 되며 무극은 조화의 本源이 되고 태극은 창조의 본체가 된다. 그리고 황극은 1과 10의 중간에서 1태극을 분열시켜 10무극에까지 이르게 하는 생장 운동의 본체가 된다. 황극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은 『서경』의 「홍범」인데 이곳에서도 5皇極이라 하였다. 이곳에서는 천하의 중심자리에서 人極을 세워 만백성을 통치하는 君王의 자리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황극은 중심자리에서 四方, 八方을 主宰하는 능력이 있다. 四方 또는 평면에서 중심 5를 더하면 황극이 되는데 이때 5를 황극의 體라하고 6면체에서 중심 7을 더하면 立體의 中心이 되는데 이때 7을 황극의 用이라고 한다. 통일되었던 물을 5土(甲5土 또는 丑5土)로서 분열을 시키기 시작하여 戊의 7火 또는 午의 7火까지 이르게 되므로 황극은 5土를 體로 하고 7火를 用으로 한다. 이것은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있어 모든 별들을 主宰하고 인체에서는 5臟의 기운이 상승하여 안면에서 7窺를 만들어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天干에서 三極의 위치를 찾아보면 甲5土는 황극의 출발점이고 戊7火는 황극의 종착점이며 甲에서 戊까지의 전 과정도 생장의 과정임으로 황극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己10土는 무극의 자리이고 壬1水와 癸6水는 태극의 자리가 된다.

## 6. 地支와 數의 배합

### 1) 地支의 순서에 따른 숫자의 배합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를 순서에 따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배합하는 것으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지지순서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順序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설명을 해보면 12지지에 이러한 숫자를 붙인 것은 순서에 따른 자연스러운 배합이지만 여기서도 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천지인의 생성순서는 1, 2, 3이고 이후에 4번째로 만물이 生한다. 그런데 天開於子하고 地闢於丑하고 人起於寅하고 物生於卯하니 子가 1이 되고 丑이 2가 되고 寅이 3이 되고 卯가 4가 되는 것도 중요 의미가 있다. 辰은 방위오행에서 5土가 되는데 순서에서도 5가 되고 午는 방위오행, 변화오행에서 모두 7을 배합하는데 순서에서도 7이 되고 申은 방위오행에서 陽金이 되어 9를 배합하는데 순서에서도 9가 되고 戌은 방위오행에서 5土, 변화오행에서 6수가 되어 합하면 11이 되는데 11번째에 위치한다.

1, 3, 5, 7, 9, 11번째에 위치하는 子, 寅, 辰, 午, 申, 戌은 陽의 순서에 위치하여 陽支가 되고 2, 4, 6, 8, 10, 12번째에 위치하는 丑, 卯, 巳, 未, 酉, 亥는 陰의 순서에 위치하여 陰支가 된다.

### 2) 地支의 방위오행에 따른 숫자의 배합

亥子是 水가 되고 寅卯는 木이 되고 巳午는 火가 되고 申酉는 金이 되고 辰戌丑未는 土가 된다. 숫자를 배합하는 방법은 陽支에는 양수를 붙이고 陰支에는 음수를 붙인다. 亥는 음수이므로 6을 배합하고 子是 양수이므로 1을 배합한다. 寅은 양목이므로 3을 배합하고 卯는 음목이므로 8을 배합한다. 巳는 음화이므로 2를 배합하고 午는 양화이므로 7을 배

합한다. 申은 양금이므로 9를 배합하고 酉는 음금이므로 4를 배합한다. 辰戌丑未의 4개의 土는 辰戌은 陽支라서 당연히 모두 5를 배합하고 丑未에서 전반기를 열어 성장으로 이끄는 丑土는 비록 음자리에 있지만 5土가 되고 未는 전반기를 매듭짓고 후반기를 여는 주인공이 되므로 10을 배합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지지의 방위오행에 따른 숫자배합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오행	양수	음토	양목	음목	양토	음화	양화	음토	양금	음금	양토	음수
배합수	1	5	3	8	5	2	7	10	9	4	5	6

### 3) 地支의 변화오행에 따른 숫자의 배합

子午는 少陰君火가 되고 丑未는 太陰濕土가 되고 寅申은 少陽相火가 되고 卯酉는 陽明燥金이 되고 辰戌은 太陽寒水가 되고 巳亥는 厥陰風木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숫자를 붙인 서적은 『玄珠密語』이다. 『현주밀어』는 六氣와 배합되는 12地支를, 政令의 實을 관장하는 正化와 政令의 虛를 관장하는 對化로 나누고 만물은 “從其本而生하고 從其標而成하여 正化가 本이 되고 對化가 標가 되며 正化에는 生數를 붙이고 對化에는 成數를 붙인다고 하였으며 萬물이 모두 土에서 생겨남으로 土는 10을 쓰지 않고 5만을 쓴다고 하였다. 그리고 正化와 對化의 구별은 君火의 午, 濕土의 未, 燥金의 酉, 寒水의 戌은 각각 火, 土, 金, 水가 왕성하게 작용하는 본래자리이기 때문에 正化가 되고 風木의 巳亥는 亥가 水生木하고 相火의 寅申은 寅이 木生火하여 亥와 寅이 正化가 된다고 하였다.<sup>48)</sup>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正化對化圖

위의 正化 對化에 따라 숫자를 배합하여 도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8. 正化 對化에 따른 숫자 배합.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六氣	君火	濕土	相火	燥金	寒水	風木	君火	濕土	相火	燥金	寒水	風木
正化·對化	對化	對化	正化	對化	對化	對化	正化	正化	對化	正化	正化	正化
配合數	7	5	2	9	6	8	2	5	7	4	1	3

筆者의 입장에서 볼 때 위의 이론은 수궁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巳亥와 寅申의 정화, 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正化가 생겨나는 本이 된다고 하여 생수를 배합하고 對化가 완성되는 標가 된다고 하여 성수를 배합하는 것이며, 셋째 濕土에서 10을 쓰지 않는 것 등이다.

筆者는 6氣의 기운이 시작하는 것에는 생수를 붙이고 6氣의 기운이 왕성한 곳에는 성수를 붙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완성이 되는 正化에 성수를 붙이고 생겨나는 對化에 생수를 붙이는 것이 옳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午, 未, 酉, 戌은 기운이 왕성하니 당연히 성수를 붙여야하고 巳亥風木에서도 亥는 水中之木임으로 기운이

48)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39~240.

생겨나 약하니 생수를 붙이고巳는 기운이 강하니 성수를 붙여야한다. 또 寅申相火도 寅에서 상화기운이 태동하니 생수를 붙이고 申에서 상화기운이 가장 왕성하니 성수를 붙여야 한다. 이것은 亥子丑寅卯辰을 風木, 君火, 濕土, 相火, 燥金, 寒水의 기운이 생겨나는 本으로 보고 巳午未申酉戌을 風木, 君火, 濕土, 相火, 燥金, 寒水의 기운이 왕성한 末로 보아 本에는 기운이 약하니 생수를 붙이고 末에는 기운이 왕성하니 성수를 붙이는 것이다.

天干에서는 변화오행에 숫자를 붙일 때 陽干에 양수를 붙이고 陰干에 음수를 붙여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地支는 모두 陽陽(예를 들어 子1, 午7 같은 것) 또는 陰陰(예를 들어 丑2, 未8 같은 것)의 결합임으로 本末로 나누어 生數, 成數의 숫자를 붙이는 것이다. 한동석은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필자가 설명한 관점에 의하여 숫자를 배합하였다.<sup>49)</sup>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巳亥厥陰風木에서 亥는 水中之木으로 풍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本이 되어 생수 3을 붙이고巳는 왕성했던 木의 단계를 지나 火로 진입한 것이므로 末이 되어 성수 8을 붙인다.

子午少陰君火에서 子는 水中之火로 군화의 기운이 시작되는 本이 되어 생수 2를 붙이고午는 君火의 末位 즉 本位가 되어 군화 기운이 왕성하므로 성수 7을 붙인다.

丑未太陰濕土에서 丑은 地中之濕으로 습토의 기운이 시작되는 本이 되어 생수 5를 붙이고 未는 습토의 本位가 되어 습토 기운이 가장 왕성하므로 성수 10을 붙인다.

寅申少陽相火에서 寅은 木의 자리에서 火를 생하려고 준비하는 相火之本이 되어 생수 2를 붙이고 申은 상화의 本位가 되어 상화 기운이 왕성하므로 성수 7을 붙인다.

卯酉陽明燥金에서 卯는 金기운이 처음 태동하는 자리라서 생수 4를 붙이고 酉는 조금의 本位가 되어 조금 기운이 왕성함으로 성수9를 붙인다.

辰戌太陽寒水에서 辰은 水를 생하려고 준비하는

寒水之本이 되어 생수 1을 붙이고 戌은 水가 통일되는 서북방으로 寒水의 기운이 왕성하므로 성수 6을 붙인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9. 地支의 變化五行에 따른 숫자배합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六氣	군화	습토	상화	조금	한수	풍목	군화	습토	상화	조금	한수	풍목
本末	本	本	本	本	本	末	末	末	末	末	末	本
배합수	2	5	2	4	1	8	7	10	7	9	6	3

#### 4) 地支의 對化作用을 통해서 본 數理

천간에서의 대화작용은 陰陽합의 관계가 분명하였지만 지지에서는 陽陽 또는 陰陰으로 대화하여 천간과 달리 夫婦相合의 의미는 약하지만 本末간에서 기운을 주고 받는 對化作用은 성립한다.

子1수와 午7火를 더하면 8木이 되는데 水火가 결합하면 木氣를 탄생시키는 모습이 들어있다. 子1수는 午의 대화를 받아 木을 생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午7火는 木에 뿌리를 두고 나왔음을 나타낸다.

丑5土와 未10土를 더하면 15가 된다. 이것은 우주를 잡아돌리는 근본동력이 15에 매여 있음을 상징한다. 이는 甲5土와 己10土의 합이 15이고 하도의 中宮數 5와 10의 합이 15이고 낙서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15이고, 8괘의 배합괘의 합이 모두 15이고(양효를 3이라 하고 음효를 2로 놓고 계산해보면 乾(☰)9, 坤(☷)6의 합이 15요, 震(☳)7, 巽(☴)8의 합이 15요, 坎(☵)7, 離(☲)8의 합이 15요, 艮(☶)7, 兌(☱)8의 합이 15가 된다.) 천간의 戊己土의 합이 15이고 생수 1, 2, 3, 4, 5의 합이 15가 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丑의 15는 분열을 시작하는 목적이 10土로 통일하기 위함이고 未의 15는 10未土로 통일하는 것은 5土에 뿌리를 박고 있고 다시 통일이 완성된 뒤 5土로 분열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寅3木과 申9金을 더하면 12가 된다. 12는 10+2인데 10은 物化하는 자리임으로 木氣가 木形을 만들어 2火로 발전하려는 모습이고 申金은 낙서의 西

49)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49.

南에 2火가 있는 것을 상징한다. 寅申은 변화오행에서 相火가 되는데 3+9=12가 되어 둘이 결합하여 火가 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卯8木과 酉4金의 합도 12가 된다. 卯는 木이 형체를 이루어 火로 발전하고 酉는 서방은 休는 金이나 火로 用事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辰5土와 戌5土의 합은 10이 된다. 이는 辰土와 戌土는 10未土의 영원한 보필자라는 것을 상징한다.

巳2火와 亥6水の 합은 8이 된다. 巳亥는 風木이 되는데 2+6=8이 되어 巳亥가 만나면 木이 되는 모습이 이 속에 들어 있다. 巳火는 자신의 뿌리가 8木이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자신이 8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며(巳의 변화오행수가 8이다.) 亥水는 水生木하여 장차 木氣로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화작용의 합수는 8이 2개, 10이 1개, 12가 2개, 15가 1개가 나와 우주는 木火의 陽氣에 의해 끊임없이 動하고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土가 항상 조화하여 질서가 붕괴되지 않고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地支의 對化作用數와 合數

대화 지지	子	午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배합수	1水7火	5土10土	3木9金	8木4金	5土5土	2火6水						
육기	君火	濕土	相火	燥金	寒水	風木						
합수	8	15	12	12	10	8						

### 5) 地支의 自化作用을 통해서 본 數理

지지는 四元質마다 모두 자신의 土를 가지고 있어 本中末운동이 완전하여 自化作用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물질을 化生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地支자체의 自化作用을 중심으로 四宮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주변화의 원리』를 위주로 하였고 필자의 견해를 추가 하였다.

亥子丑은 水宮을 이룬다. 水宮은 만유생명의 근

본자리이다.

해자축은 방위로는 亥6, 子1, 丑5가 되어 합이 12가 되나 子의 1은 본체로써 운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11이 되고<sup>50)</sup> 변화로는 亥3, 子2, 丑5가 되어 합이 10이 된다. 11은 시작할 때부터 운동의 목적이 11成道에 있음을 나타내고 10은 완전함을 가지고 시작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정역팔괘도에서 정북방에 乾10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亥는 방위로는 6水이고 변화로는 3木이다. 이것은 亥水의 입장에서는 木을 생하려는 水라는 의미이고 木의 입장에서는 水中之木이 된다. 水中之木은 厥陰이라고 하는데 이는 物이 생하려고 하지만 力不及하여서 生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6과 3을 합하면 9가 되는데 9는 뿌리가 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다시 더 수축해야 自動性이 생길 것이니 그 자리는 바로 子가 될 것이다. 천간과 지지에서 水에 배합되는 干支의 숫자의 순서가 다르다. 천간은 壬1水, 癸6水の 순서였고 지지는 亥6水, 子1水の 순서이다. 천간은 天一生水, 地六成之의 의미 강하고 지지는 戊5空에서 11성도를 이루고 6水가 化生되어 이 水가 동하여 만물을 化生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子는 방위로는 1水이고 변화로는 2火이다. 子水의 입장에서 동하려는 水이고 火의 입장에서는 水中之火이다. 이것은 癸6水가 癸2火로 변화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데 元陰속에 元陽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의학에서는 元陰 속에서 동하는 火를 命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체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 四神圖에서 北玄武는 한 마리의 거북을 뱀이 감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북은 水요, 뱀은 火로 북방수에는 水火가 共棲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2=3이 되어 외형은 水이지만 내용에서는 木이 되어 생명의 元氣가 발동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

50)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60.

丑은 방위와 변화가 모두 5土이다. 이 자리는 地中之濕이 되어 太陰이라고 부른다. 丑土는 전반기의 성장운동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이지만  $5+5=10$ 이 되어 그 목적은 未10土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운동은 주도면밀하여 머리에서 꼬리를 준비하고 꼬리에서는 다시 머리를 준비하여 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10이라는 개념 속에는 1수가 5土의 도움을 받아 분열을 시작하지만 10土자리에 이르게 되면 성장운동을 정지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寅卯辰은 木宮이 된다. 木宮은 만유생명이 탄생하는 출발점이다. 인묘진은 방위로는 寅3, 卯8, 辰5가 되어 분중말운동을 하는데 그 합이 16이 되고 변화로는 寅2, 卯4, 辰1이 되어 그 합이 7이 된다. 방위의 합수는 水宮 11에서 16이 되었으니 1수가 6수로 발전해 나왔다는 의미가 있고 변화의 합수 7은 木生火하여 7火로 발전해 나가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寅은 방위로는 3木이고 변화로는 2火이다. 寅3木은 아직 形化하지 않은 地中之木인데 이처럼 만물이 생겨날 때는 반드시 相火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과 2를 더하면 5가 되는데 地中之木이 생겨날 때는 丑土의 土化作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으로 寅木은 여기서 母體의 象을 띄게 되는 것이다.

卯는 방위로는 8木이고 변화로는 4金이다. 여기서 木金이 함께 있는 것은 金火交易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천간에서의 乙木이 乙金으로 바뀌고 肝木이 肝金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 體陰而用陽(體陰은 肝의 실체가 신축성이 없는 것이고 또 硬化되어 가며 藏血하는 것 등이며 用陽은 主疏泄, 喜條達하는 기능이다)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자연계에 있는 만물은 오행의 기운을 兼有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木과 金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물로는 닭이 있다. 『소문·금괘진언론』에서는 닭을 木에 배속하였고 『소문·오상정대론』에서는 닭을 金에

배속하였다. 닭은 새벽을 알리므로 木의 동물이며 『주역』에서 巽에 배속하여 風木의 성질이 있고 12지 지에서는 酉에 배합되어 金의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卯木과 寅木의 차이점은 寅木은 木氣의 단계이고 卯木은 木形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氣가 形으로 바뀌는 마디가 10인데 卯는  $8+4=12$ 가 되어 木形을 쓰고서 木生火하여 2火로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卯에는 木中之火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또 木氣는 金克木을 당해야만 木形을 이루게 된다.

辰은 방위로는 5土이고 변화로는 1水이다. 丑土는 水生木의 다리를 놓아주는 자리이고 辰土는 木生火의 다리를 놓아주는 자리이다. 丑土는 자신의 속성이 변하지 않고서 一陽의 脫出을 도왔지만 辰土는 자신이 水로 바뀌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辰土는 生에서 長으로 매개해주는 자리가 되어 散陽과 護陽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으로 신축성을 가지면서도 陽이 너무 과도하게 발산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신축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뻗어나가게 하는 역할은 1수가 하게 되고 응고작용을 통해 과도한 양의 분산을 억제하는 것은  $5+1=6$ 이 되어 6수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6속에는 장차 戌의 6水자리에서 생명을 통일하여 十一成道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잠재하여 있다.

巳午未는 火宮을 이룬다. 巳午未는 전반기의 발전의 과정을 매듭짓고 후반기의 통일의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큰 마디가 된다. 사오미는 방위로는 巳2, 午7, 未10이 되어 합이 19가 되고 변화로는 巳8, 午7, 未10이 되어 합이 25가 된다. 방위의 합수 19는 10未土를 건너 9金으로 나아가려는 금화교역의 모습이 있고 변화의 합수 25는  $10+10+5$ 로 전반기의 분열과정이 5土에 뿌리를 박고 여기까지 발전해 왔음을 나타내고 다시 이 자리는 맞은편의 5土를 준비하는 모습도 들어 있다.

巳는 방위로는 2火이고 변화로는 8木이다.巳는 분열을 시작하는 자리임으로 陰火인 2火가 배속되

어 있고 亥水의 대화작용에 의해 火가 一步후퇴하여 木이 되어 과도한 분열을 억제하고 있다.  $2+8=10$ 이 되는데 이는 巳가 土에 뿌리를 두고 나왔다는 것도 나타내고 장차 오게 될 10未土를 준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火中之土는 火生土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자연의 변화는 주도면밀하여 후천을 준비하는 土化作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午火는 방위와 변화의 숫자가 모두 7이다. 이처럼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기운이 순수한 것을 의미하며 자체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12지지에서 이처럼 오행과 숫자가 동일한 것으로는 丑土, 午火, 未土가 있으며 酉金은 오행은 동일하나 숫자는 4에서 9로 바뀐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午의 종합적인 모습은  $7+7=14$ 가 되어 10未土를 지나 4金으로 통일작용을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火金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물로 말이 있다. 『소문·금계진언론』에서는 말을 金에 배속하였고 『소문·오상정대론』에서는 火에 배속하였다. 말은 午에 속하여 火의 성질이 있고 『주역』에서는 乾金에 배속하여 金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午가 火와 金의 象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午에 말을 배속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巳에서는 10未土의 土化作用을 준비하였고 다음 단계인 午에서는 土化作用과 金火交易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니 자연의 준비성이 치밀함을 여기서도 확인 할 수 있다.

未土도 방위와 변화의 숫자가 모두 10이다. 이 자리는 우주운동에 있어서 양운동을 음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10+10=20$ 으로 나타나는데 1이 분열하여 19까지 발전했다가 다시 1로 통일 되는 360수 생성도의 그림을 보더라도 현실에서 20은 작용하지 않고 19로 작용한다. 한동석은 20은 虛하고 無한 자리로써 体가 되고 用은 19로 한다고 하였다. 19는  $10+9$ 로 10土의 기반위에서 9金으로 통일작용을 시작하는 수이다. 巳午未의

火宮은 巳에 10土의 象이 있었고 午에 10土와 4金의 象이 있었고 未에 10土와 9金의 象이 있었으며 巳午未의 방위의 合이 19였으니 火宮에는 모두 金火交易의 象이 있다. 이것이 낙서의 남방에 4와 9가 배치된 이유인 것이다.

申酉戌은 金宮이 된다. 金宮은 金火交易이 완성되어 우주의 목적이 실현되는 곳이다. 방위오행은 申9, 酉4, 戌5가 되어 合이 18이 되고 변화오행은 申7, 酉9, 戌6이 되어 合이 22가 된다. 18은  $10+8$ 로 가을에 추수한 열매가 봄에 씨 뿌렸던 종자와 같다는 것을 상징하고 22는  $10+10+2$ 로 가을은 体는 金이나 用은 火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申은 방위로는 9金이고 변화는 7火이며 合은  $9+7=16$ 이 된다. 申은 서남방에 있으니 금화교역하여 9金이 7火를 포위하여 생명을 통일하려는 모습이 있고 16은  $10+6$ 으로 10土와 6水로써 역시 陽을 포위하여 수렴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며 우주의 목적이 실현되는 水土合德의 11成道가 여기서부터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酉는 방위로는 4金이고 변화로는 9金이 된다. 이 자리는 음금, 양금이 동시에 작용하여 금화교역이 완성되는 자리이다.  $4+9=13$ 이 되고  $10+3$ 의 象이 되는데 10무극을 거쳐 통일을 완성하고 보니까 그 내용이 봄에 출발했던 그 陽(3)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3을 다음 주기의 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戌은 방위로는 5土이고 변화로는 6水이다. 그리고  $5+6=11$ 이 된다. 이 자리는 10무극의 생명이 1태극으로 완전하게 통일된 十一成道가 이루어진 궁극의 자리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반기의 과정은 1수가 분열하여 3木을 만들고 7火로 발전하는 분열의 과정이었고 후반기의 과정은 申에서 9金이 7火를 포위하여 통일을 시작하고 이것이 酉에서 3木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戌자리에서 1수로 통일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것은 未의 위에 있던 一陽

이 申에서는 중간으로 들어가고 酉에서는 아래로 잠겼다가 戌에서 완전 통일되는 모습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일부 선생은 이 자리를 十一一之空이라고 하였다. 戌은 水土가 合德하여 11성도가 이루어진 空자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자리를 또한 戌5空이라고도 하였다. 空자리는 우주의 본체자리이다. 우주의 본체를 태극이라고 하는데 한동석은 空을 1수를 창조하는 창조의 본체라고 하였고 水는 운동하고 변화는 운동의 본체라고 하였다. 복희팔괘도에서 1은 乾과 배합된다. 생명이 통일된 戌자리가 만유생명의 근원이듯이 하늘이 만유생명의 근원이 된다. 문왕팔괘도에서는 乾을 서북에 배치하였으니 이도 또한 戌5空 자리가 생명의 근원이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空은 未의 虛하고 無했던 생명이 압축되고 통일되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하여 고동치고 있는 살아있는 허(living emptiness)인 것이다.<sup>51)</sup> 自化作用의 수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11. 地支의 自化作用數와 合數

지지	子		丑		寅		卯		辰		巳	
배합수	1 水	2 火	5 土	5 土	3 木	2 火	8 木	4 金	5 土	1 水	2 火	8 木
합수	3		10		5		12		6		10	

지지	午		未		申		酉		戌		亥	
배합수	7 火	7 火	10 土	10 土	9 金	7 火	4 金	9 金	5 土	6 水	6 水	3 木
합수	14		20		16		13		11		9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모나드(1)가 진공 속에서 숨을 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수들을 만들어 낸다.<sup>52)</sup>고 생각하였는데 동서양의 사고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12지지에서 三極의 자리를 살펴보면 丑5土는 황극의 체가 되고 午7火는 황극의 用이 되어 丑에서 午까지의 성장운동을 황극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고, 10未土는 무극의 자리가 되고 戌5空은 창조의 본체인 태극이 되고 亥子의 水

는 태극이 운동하는 본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 5. 干支의 合數 60

천간은 10개로 이루어져 있고 지지는 1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결합하면 60甲子가 나온다. 60이라는 수는 64괘에서 體가 되는 乾坤坎離를 제외한 숫자이고 老陽策數 36과 老陰策數 24를 합한 수이며 또한 少陽策數 28과 少陰策數 32를 합한 수이기도 하다. 또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의 팔괘는 양효 12개와 음효 12개로 구성되는데 양효 12개에 양의 작용수 3을 곱하면 36이 되고 음효 12개에 음의 작용수 2를 곱하면 24가 되어 이 둘을 합하면 역시 6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60개의 수를 단위로 하여 자리수가 올라가는 60진법은 수메르문명에서 기원되어 바빌로니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등에 활용되고 있다.

正易에서는 60을 無無位數라고 하는데 하도의 자리가 없는 中數 15와 낙서의 자리가 없는 中數 5를 합하면 20인 無位數가 되고 이것이 生長成의 三變을 하면 無無位數인 60이 된다. 정역에서 60수를 만드는 또다른 說로는 1태극과 5황극의 合數 6을 後天의 母數 10을 곱하여 6×10=60으로 산출하기도 한다.<sup>53)</sup>

## 6. 결론

數理를 통해 十干과 十二支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양에서 眞理는 象으로 들어나고 象은 數를 결정하기 때문에 數의 정직성, 명확성, 객관성을 통해 象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만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數는 사물의 이치와 법칙을 파악하는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2.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만

51)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66~171.

52) 이광연 지음.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p.131.

53) 김주성 편저. 正易集註補解. 부천. 태원출판사. 1999. p.260

- 물의 본질은 수라고 하였으며 현대의 문명이 수와 수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저술된 책이라 하여 수학이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고 문명을 발전시킨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3.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는 동서양에서 대단히 중시하였다. 1은 태극수로 첫 출발을 의미하면서도, 분열되었던 생명이 통일됨을 나타내고 2는 음양운동을 시작하는 음양수이다. 3은 천지인 三才의 수 이면서 생성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4는 사상수로 만물구조의 기본을 나타낸다. 5는 오행수, 황극수이고 6은 천지인이 합일된 것을 상징하며 六氣의 수가 된다. 7은 천지인의 주재수이고 8은 8괘수로 陰의 완성을 상징한다. 9는 九宮數이고 1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무극수가 된다.
  4. 천간의 방위오행에 따른 숫자배합은 甲이 양목이라 3, 乙이 음목이라 8, 丙이 양화라 7, 丁이 음화라 2, 戊가 양토라 5, 己가 음토라 10, 庚이 양금이라 9, 辛이 음금이라 4, 壬이 양수라 1, 癸가 음수라 6이 배합된다.
  5. 천간의 변화오행에 따른 숫자배합은 甲이 양토라 5, 己가 음토라 10, 乙이 음금이라 4, 庚이 양금이라 9, 丙이 양수라 1, 辛이 음수라 6, 丁이 음목이라 8, 壬이 양목이라 3, 戊가 양화라 7, 癸가 음화라 2가 배합된다.
  6. 천간의 대화작용을 통해서 수리를 살펴보면 甲己는  $3+10=13$ 이 되고 乙庚은  $8+9=17$ 이 되고 丙辛은  $7+4=11$ 이 되고 丁壬은  $2+1=3$ 이 되고 戊癸는  $5+6=11$ 이 되는데 11은 우주의 궁극의 목표점이 十一成道를 지향하는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丁壬의 습이 3이 되는 것에서 丁壬合木의 의미도 관찰할 수 있다.
  7. 천간의 방위오행과 변화오행이 결합하여 자화작용하는 수리를 살펴보면 甲은  $3+5=8$ , 乙은  $8+4=12$ , 丙은  $7+1=8$ , 丁은  $2+8=10$ , 戊는  $5+7=12$ , 己는  $10+10=20$ , 庚은  $9+9=18$ , 辛은  $4+6=10$ , 壬은  $1+3=4$ , 癸는  $6+2=8$ 이 되는데 이를 통해 천간의 각각의 정신과 지향점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8. 지지의 방위오행에 따른 숫자배합은 子는 양수라 1, 丑은 음토이나 전반기 생장의 문을 열므로 5, 寅은 양목이라 3, 卯는 음목이라 8, 辰은 양토라 5, 巳는 음화라 2, 午는 양화라 7, 未는 음토이면서 후반기 통일을 시작하는 곳이므로 10, 申은 양금이라 9, 酉는 음금이라 4, 戌은 양토라 5, 亥는 음수라 6이 된다.
  9. 지지의 변화오행에 따른 숫자배합은 『玄珠密語』의 正化, 對化에 따른 배합법이 있으나 타탕성이 결여되어 취하기 어렵다. 6氣의 기운이 시작하는 곳에 생수를 붙이고 기운이 왕성한 곳에 성수를 붙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에 의거하여 숫자를 배합하면 子군화는 2, 午군화는 7, 丑습토는 5, 未습토는 10, 寅상화는 2, 申상화는 7, 卯조금은 4, 酉조금은 9, 辰한수는 1, 戌한수는 6, 亥풍목은 3, 巳풍목은 8이 배합된다.
  10. 지지의 대화작용을 통해서 수리를 살펴보면 子午는  $1+7=8$ 이 되고 丑未는  $5+10=15$ 가 되고 寅申은  $3+9=12$ 가 되고 卯酉는  $8+4=12$ 가 되고 辰戌은  $5+5=10$ 이 되고 巳亥는  $2+6=8$ 이 된다. 대화의 합수가 8과 12인 것은 우주에는 木火의 陽氣가 끊임없이 動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10과 15인 것은 이러한 변화를 토가 주재하여 질서있게 순환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11. 지지의 자화작용을 통해서 수리를 살펴보면 子는  $1+2=3$ , 丑은  $5+5=10$ , 寅은  $3+2=5$ , 卯는  $8+4=12$ , 辰은  $5+1=6$ , 巳는  $2+8=10$ , 午는  $7+7=14$ , 未는  $10+10=20$ , 申은  $9+7=16$ , 酉는  $4+9=13$ , 戌은  $5+6=11$ , 亥는  $6+3=9$ 가 된다. 이 숫자는 하늘의 변화가 완성되어 완전한 변화를 하고 있는 땅의 변화질서의 종합적인 모습으로 이 속에서 土化作用, 相火作用, 金火交易作用, 十一成道 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2. 천간과 지지에서 우주변화의 본체인 무극, 태극, 황극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조화의 본원인 무극은 10으로 드러나니 천간에서 己, 지지에서 未가 된다. 우주의 본체인 태극은 悤과 水로 드

러나니 천간에서 壬과 癸, 지지에서 창조의 본체인 戊, 운동의 본체인 亥, 子로 나타난다. 생장운동의 본체인 황극은 5와 7로 드러나니 천간에서는 甲, 戊로 나타나고 지지에서는 황극의 체인 丑과 황극의 用인 午자리가 된다.

社. 1989.

17.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3).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

18. 洪원식 校合編纂. 정교황제내경.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 References

1. 김석진 강해. 대산주역강해(하경). 서울. 대유학당. 1994.
2. 김용규. 생각의 시대. 과주. 살림출판사. 2015.
3. 김주성 편저. 正易集註補解. 부친. 태훈출판사. 1999.
4. 黎靖德 類編. 朱子語類(三). 濟南. 山東友誼書社. 1993.
5. 마이클 슈나이더저. 이충호 옮김. 자연 예술과 학의 수학적 원형. 서울. 경문사. 2007.
6. 백유상, 김도훈. 소문입식운기론오와 오행대의 오행 및 간지에 대한 해석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3)
7. 안경진. 개벽실제상황. 서울. 대원출판. 2006.
8. 유영준, 윤창열. 십간의 음양, 오행, 相沖, 장부배합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9. 32(2)
9. 劉溫舒 原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鶴苑出版社. 2008.
10. 윤창열. 간지의 의의 및 설문해자의 十干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7. 30(4)
11. 이광연 지음. 피타고라스가 보여주는 조화로운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12. 존 스트로마이어, 피터 웨스트브룩 지음. 류영훈 옮김. 피타고라스를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톱크. 2005.
13. 周易(元). 대전. 학민문화사. 1990.
14. 周易(貞). 대전. 학민문화사. 1990.
15.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16. 胡廣等 纂修. 性理大全(1). 濟南. 山東友誼書